

수출기업 2024년 수출환경 전망 설문 조사 결과

2024. 2.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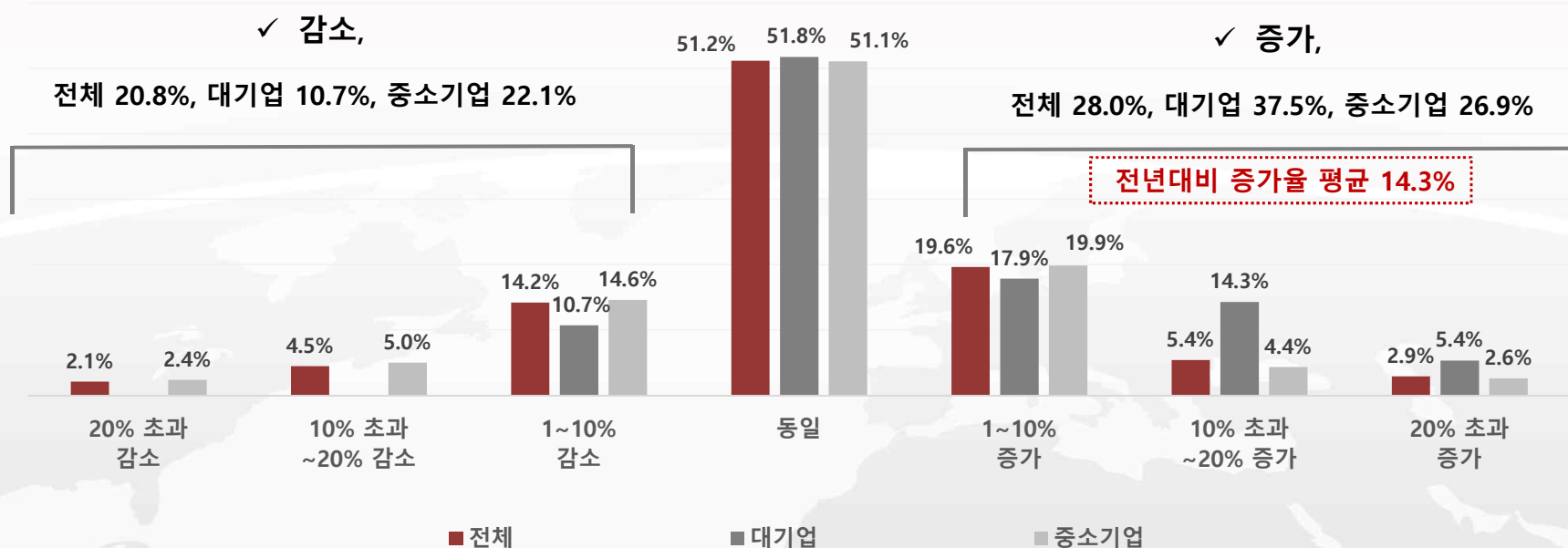
- 목적 : 2024년 수출 환경에 대한 수출기업 전망 조사
- 설문 대상 : 수출 기업 514개社 (설문 대행 조사기관 (주)화인리서치)
 - 기계류(113개社), 자동차(95개社), 전기전자(76개社) 등 총 12개 업종
 - 대기업 56개, 중소기업 458개
- 설문 기간 : 2024. 1. 2 ~ 1. 8

■ 설문 대상 기업 28.0% '증가' 전망, 20.8% '감소' 전망, 증가율 전망 평균은 14.3%

- (전체) 설문 대상 기업 28%가 전년대비 수출액 '증가' 전망, 20.8%는 '감소' 전망해 '증가' 7.2%p 우세
- 설문 대상 기업 51.2%는 전년과 동일 수준 전망
- (규모별) 대기업은 37.5% '증가' 전망, 10.7% '감소' 전망, 중소기업은 26.9% '증가' 전망, 22.1% '감소' 전망
- 전체 설문 대상(514개) 가운데 19.6%, '증가' 전망한 기업(144개) 가운데 70%는 전년대비 1~10% 증가 전망
- 수출 증가 전망 기업들의 전년대비 증가율 평균은 14.3% (대기업 14.4%, 중소기업 14.3%)

2024년 수출액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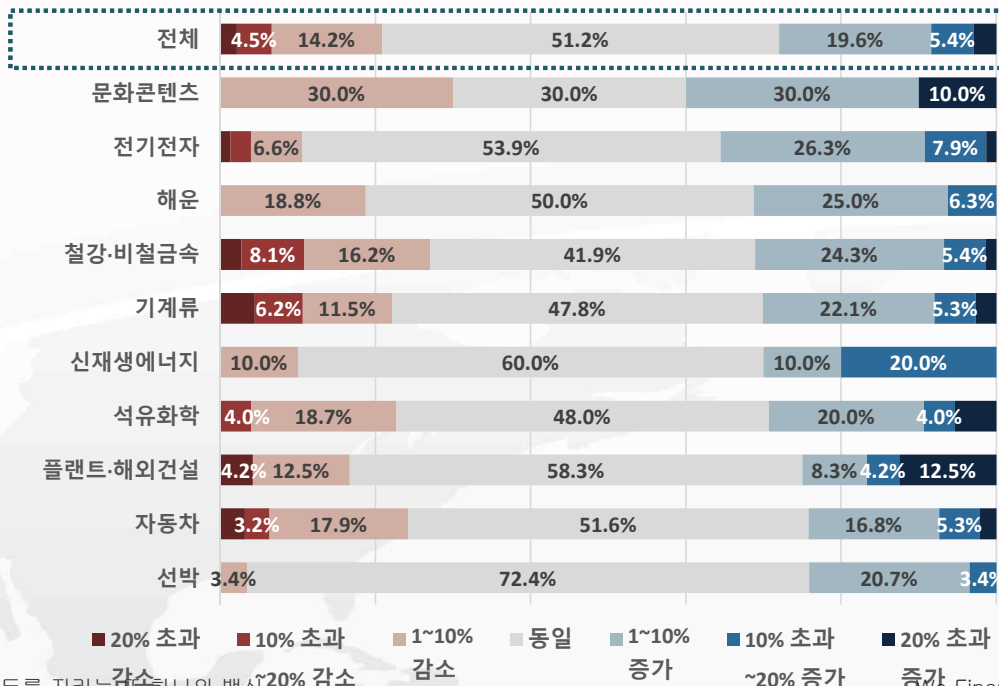
(전체 514개 기업, 대기업 56, 중소기업 458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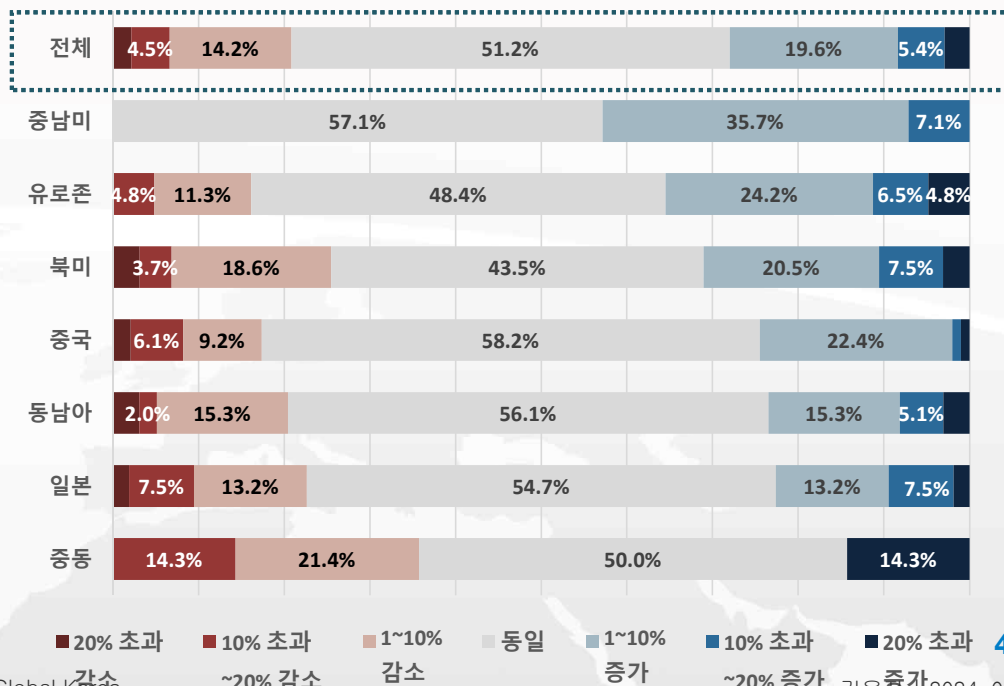
■ 산업별로는 전기전자·해운·철강·기계, 지역별로는 유로존·북미 증가 전망 높아

- (산업별) 문화콘텐츠(40.0%), 전기전자(35.5%), 해운(31.3%), 철강(31.1%), 기계(30.1%) 등이 '증가' 전망 평균(28.0%) 상회
- '감소' 전망이 높은 산업은 문화콘텐츠(30.0%), 철강(27.0%), 자동차(24.2%), 기계(22.1%) 등
- (지역별) 중남미(42.9%), 유로존(35.5%), 북미(31.1%) 수출 기업들은 평균보다 '증가' 전망 상회
- '감소' 전망이 높은 지역은 중동(35.7%), 북미(25.5%), 일본(22.6%) 등
- 중국은 '감소' 전망 17.3%, '증가' 전망 24.5%로 증가 우세, 응답기업 22.4%가 '1~10% 증가' 답해 증가율 전망 평균은 10%
- 전체 기업 증가 전망 비율(28.0%) 및 증가율 전망 평균(14.3%)보다는 하회

산업별 수출액 전망 (전체 514개 기업)



지역별 수출액 전망 (전체 514개 기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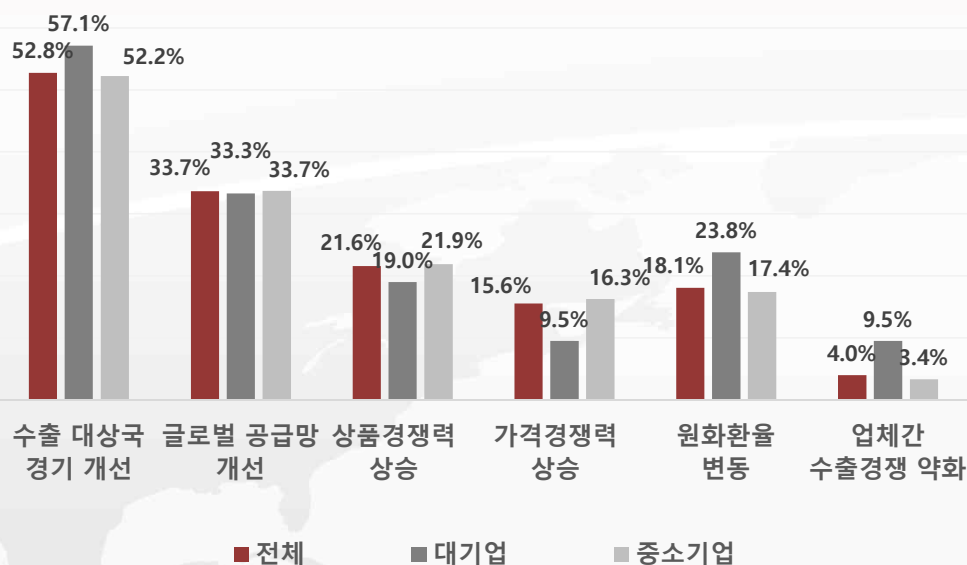


■ 수출 증가 요인,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(41.0%)”, “글로벌 공급망 개선(39.6%)” 순

- (전체) 수출 증가를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증가 요인에 대해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(41.0%)”, “글로벌 공급망 개선(39.6%)”, “상품경쟁력 상승(25.0%)”, “가격경쟁력 상승(13.9%)”, “원화환율 변동(11.1%)” 순으로 응답
- 2023년 조사와 비교할 때 응답 순서는 비슷하나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”이 소폭 감소하고 “글로벌 공급망 개선”이 늘어났으며, “원화환율 변동” 부분은 감소
- (규모별) 대기업은 “글로벌 공급망 개선(42.9%)”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, 중소기업은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(43.1%)”을 가장 많이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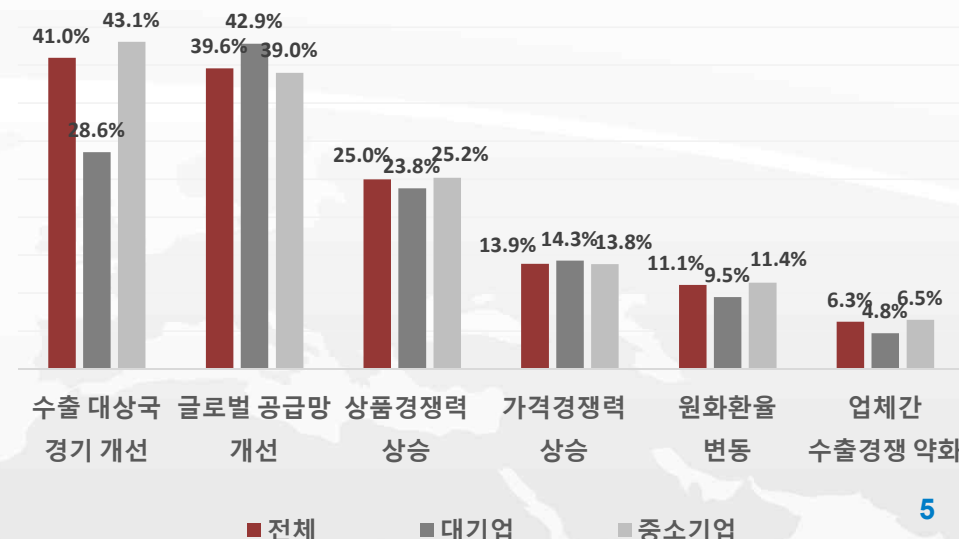
2023년 조사 수출 증가 전망 요인

(1+2순위, 증가 전망 기업 전체 199, 대기업 21, 중소기업 178)



2024년 조사 수출 증가 전망 요인

(1+2순위, 증가 전망 기업 전체 144, 대기업 21, 중소기업 1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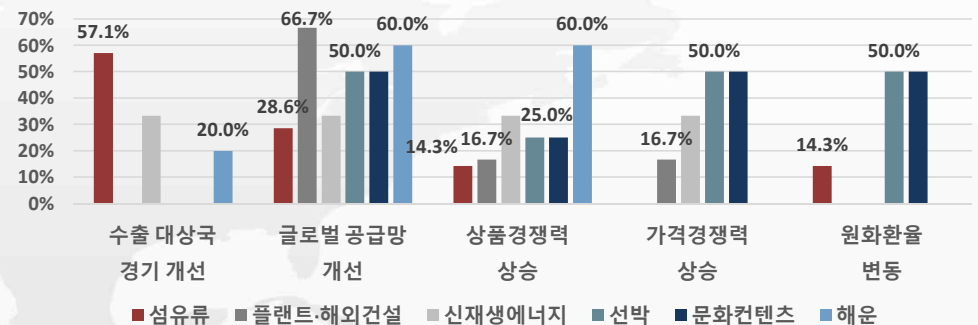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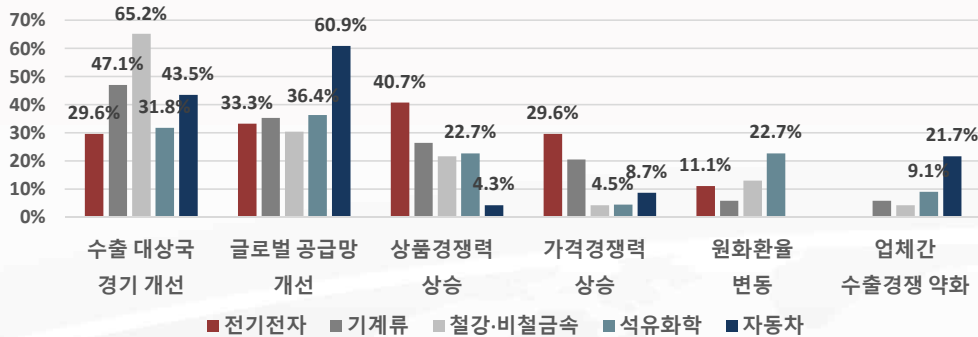


■ 중국·동남아·중남미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”, 플랜트·자동차·선박 “공급망 개선”

- (산업별)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”은 철강(65.2%), 석유류(57.1%), 기계류(47.1%), 자동차(43.5%) 등에서, “글로벌 공급망 개선”은 플랜트/해외건설(66.7%), 자동차(60.9%), 해운(60.0%), 선박(50.0%) 등에서 응답이 높음.
- “상품경쟁력 상승”은 해운(60.0%), 전기전자(40.7%)에서, “가격경쟁력 상승”은 선박(50.0%), 전기전자(29.6%) 등에서 높음.
- (지역별)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”은 중남미(66.7%), 중동(50.0%), 동남아(47.8%), 중국(45.8%) 등에서, “글로벌 공급망 개선”은 유로존(50.0%), 중동(50.0%), 북미(42.0%) 지역 수출기업에서 응답이 높음.
- “가격경쟁력 상승”은 동남아(17.4%), 일본(16.7%) 등에서, “원화환율 변동”은 일본(25.0%), 중국(16.7%) 등에서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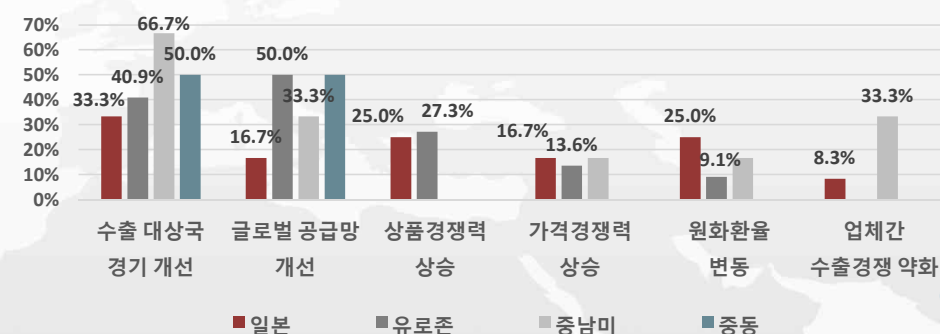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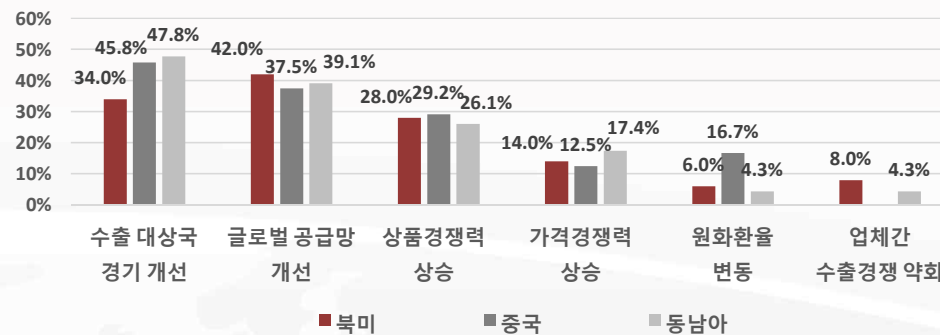
산업별

(1+2순위, 144개 기업)



지역별

(1+2순위, 144개 기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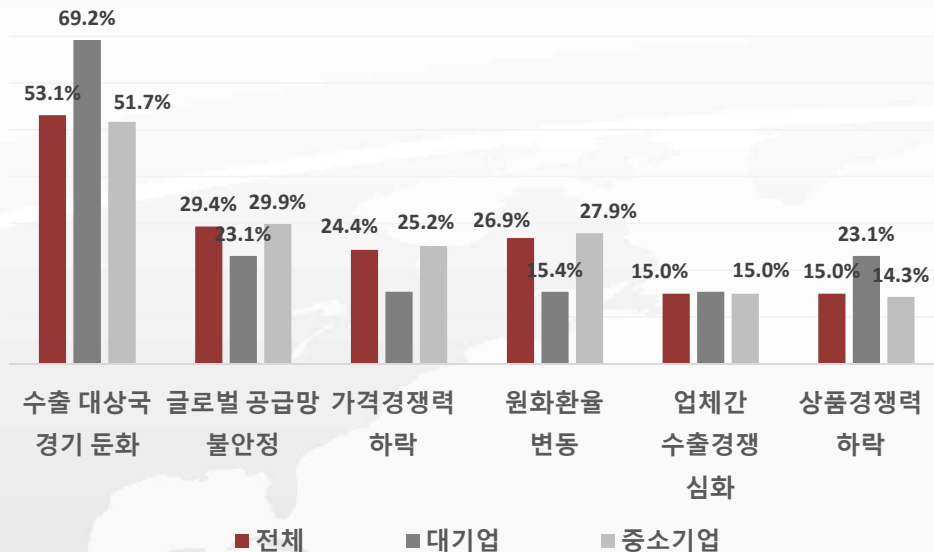


■ 수출 감소 요인,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(68.2%)”,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(29.9%)” 순

- (전체)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감소 요인에 대해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(68.2%)”,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(29.9%)”, “가격경쟁력 하락(22.4%)”, “원화환율 변동(18.7%)”, “업체간 수출경쟁 심화(16.8%)”, “상품경쟁력 하락(8.4%)” 순으로 응답
- 2023년 조사와 비교할 때 응답 순서는 비슷하나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” 응답이 증가했고, 대기업의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” 응답 비율도 늘어났으며, “원화환율 변동” 부분은 감소
- (규모별) 대기업은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(50.0%)”와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(50.0%)” 응답률이 모두 높은 반면, 중소기업은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(69.3%)” 응답률이 크게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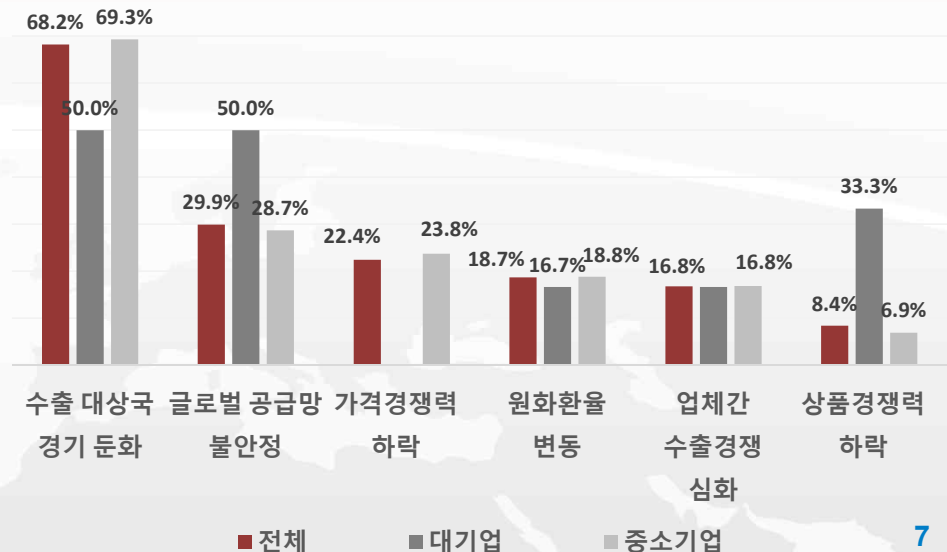
2023년 조사 수출 감소 전망 요인

(1+2순위, 감소 전망 기업 전체 160, 대기업 13, 중소기업 147)



2024년 조사 수출 감소 전망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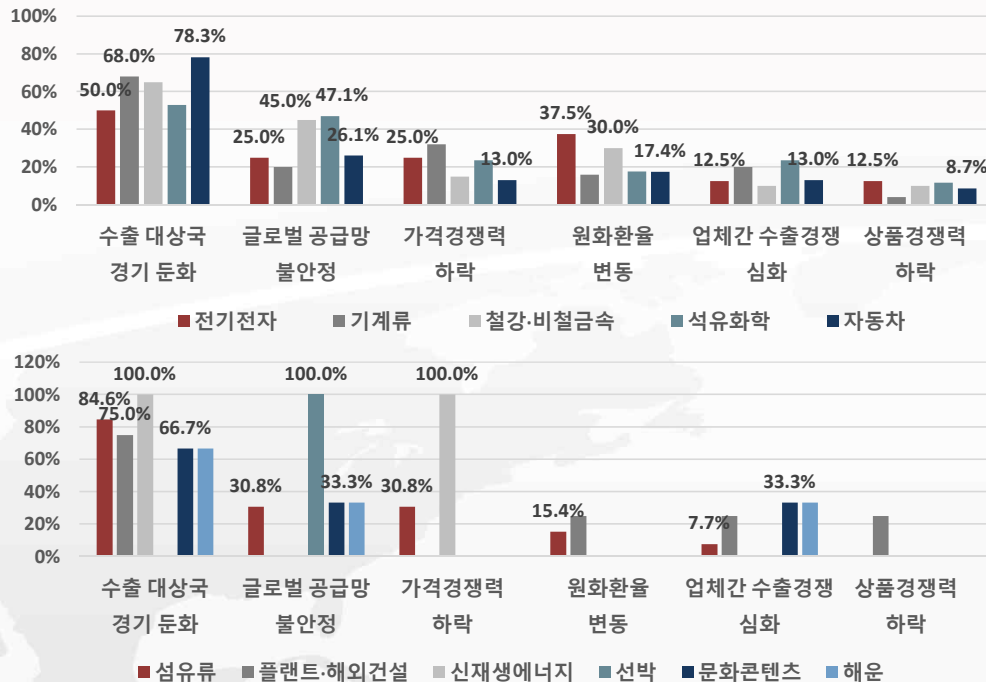
(1+2순위, 감소 전망 기업 전체 107, 대기업 6, 중소기업 10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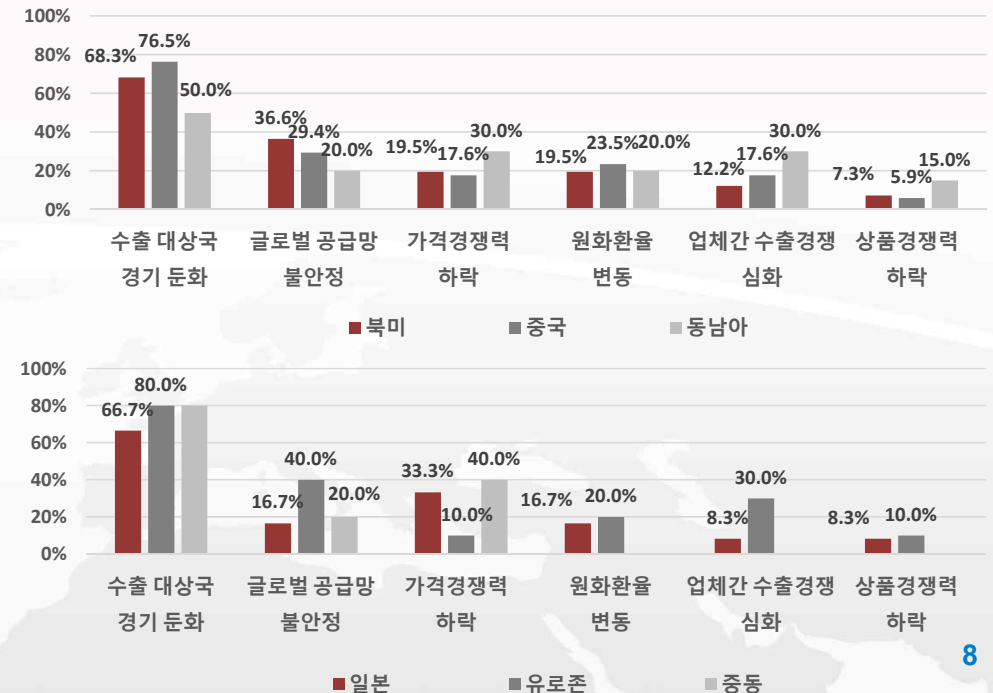
■ 중국·유로존·중동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”, 선박·석유화학·기계류 “공급망 불안정”

- (산업별)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”는 신재생에너지(100%), 섬유류(84.6%), 자동차(78.3%), 플랜트/해외건설(75.0%) 등에서,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”은 선박(100%), 석유화학(47.1%), 기계류(45.0%) 등에서 응답이 높음.
- “가격경쟁력 하락”은 신재생에너지(100%), 섬유류(30.0%), “원화환율 변동”은 전기전자(37.5%), 철강(30.0%) 등에서 높음.
- (지역별)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”는 유로존(80.0%), 중동(80.0%), 중국(76.5%) 등에서,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”은 유로존(40.0%), 북미(36.6%), 중국(29.4%) 지역에서 응답이 높음.
- “가격경쟁력 하락”은 중동(40.0%), 동남아(30.0%)에서, “업체간 수출경쟁 심화”도 중동(30.0%), 동남아(30.0%)에서 높음.

수출 감소 요인 : 산업별 (1+2순위, 107개 기업)



수출 감소 요인 : 지역별 (1+2순위, 107개 기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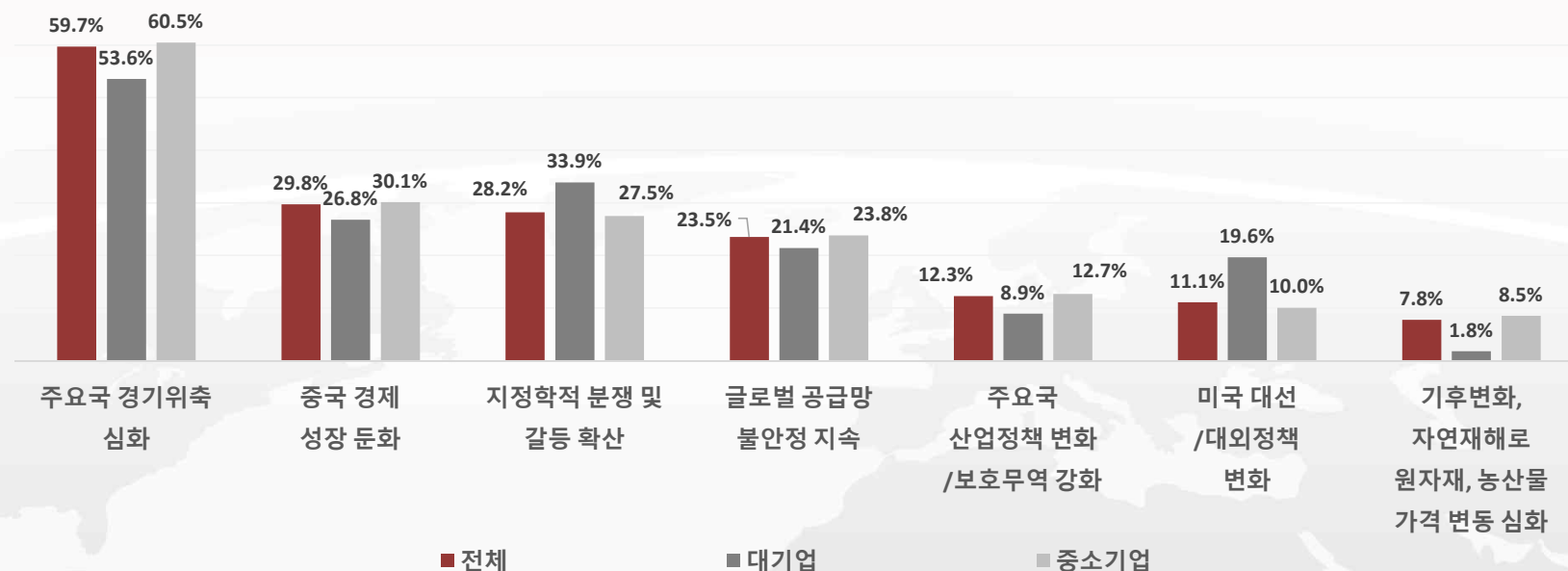


■ “주요국 경기위축 심화(59.7%)”, “중국경제 성장둔화(29.8%)” 등 경기 하방 우려 증대

- 2024년 예상되는 수출 리스크에 대해 설문 기업들은 “주요국 경기위축 심화(59.7%)”, “중국경제 성장둔화(29.8%)”, “지정학적 분쟁 및 갈등확산(28.2%)”,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지속(23.5%)” 순으로 응답
- 2024년 미국 등 주요국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“주요국 산업정책 변화/보호무역 강화(12.3%)”, “미국 대선/대외정책 변화(11.1%)”에 대한 우려도 존재, “기후변화,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재,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(7.8%)”도 나타남.
- 중소기업은 “주요국 경기위축 심화”, “중국 경제 성장 둔화” 등 경기 하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소폭 높았으며, 대기업은 “미국 대선/대외정책 변화”, “지정학적 분쟁 및 갈등 확산” 등 대외 요인 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남.

2024년 수출 리스크

(1+2순위, 전체 514개 기업, 대기업 56, 중소기업 45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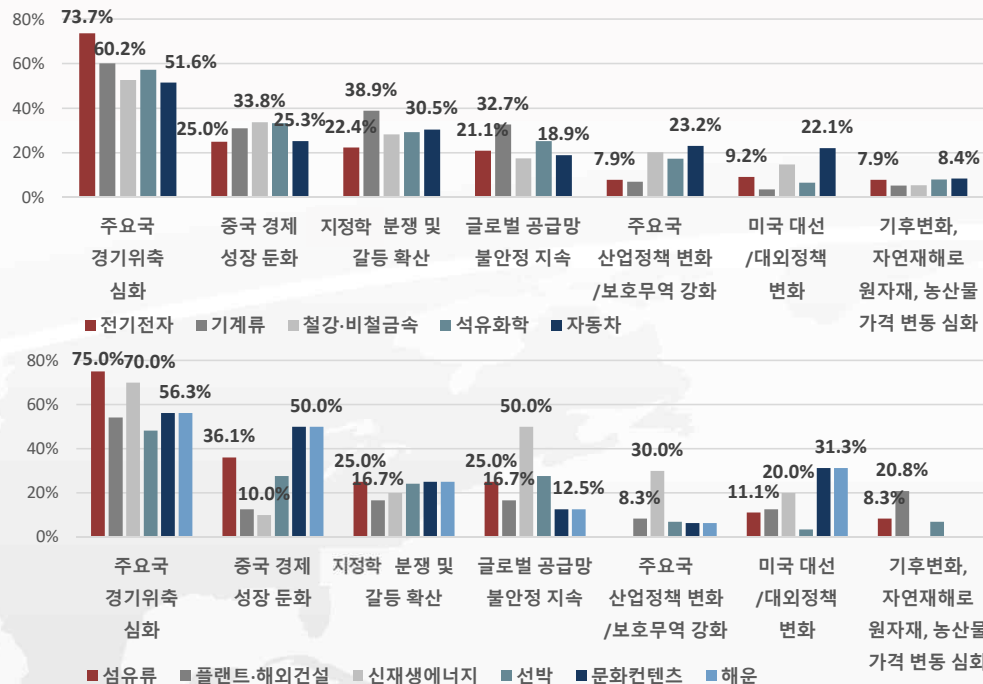


■ 석유류·철강은 “중국경제 성장 둔화”, 자동차·신재생에너지는 “미 대선 및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” 우려 높아

- (산업별) “주요국 경기위축 심화”는 석유류(75.0%), 전기전자(73.7%), 신재생에너지(70.0%), 기계류(60.2%) 등에서, “중국경제 성장 둔화”는 문화콘텐츠(50%), 해운(50%), 석유류(36.1%), 철강(33.8%) 등에서 응답이 높음.
- “지정학적 분쟁 및 갈등 확산”은 기계류(38.9%), “주요국 산업정책 변화”는 신재생에너지(30.0%), 자동차(23.2%), “미국 대선/대외정책 변화”는 해운(31.3%), 자동차(22.1%), 신재생에너지(20.0%) 등에서 높음.
- (지역별) “중국경제 성장 둔화”는 중국(45.9%), “주요국 산업정책 변화”는 유로존(24.2%) 수출 기업이 높게 응답
- “기후변화,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재,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”는 중동(28.6%), 중남미(21.4%) 수출 기업이 높게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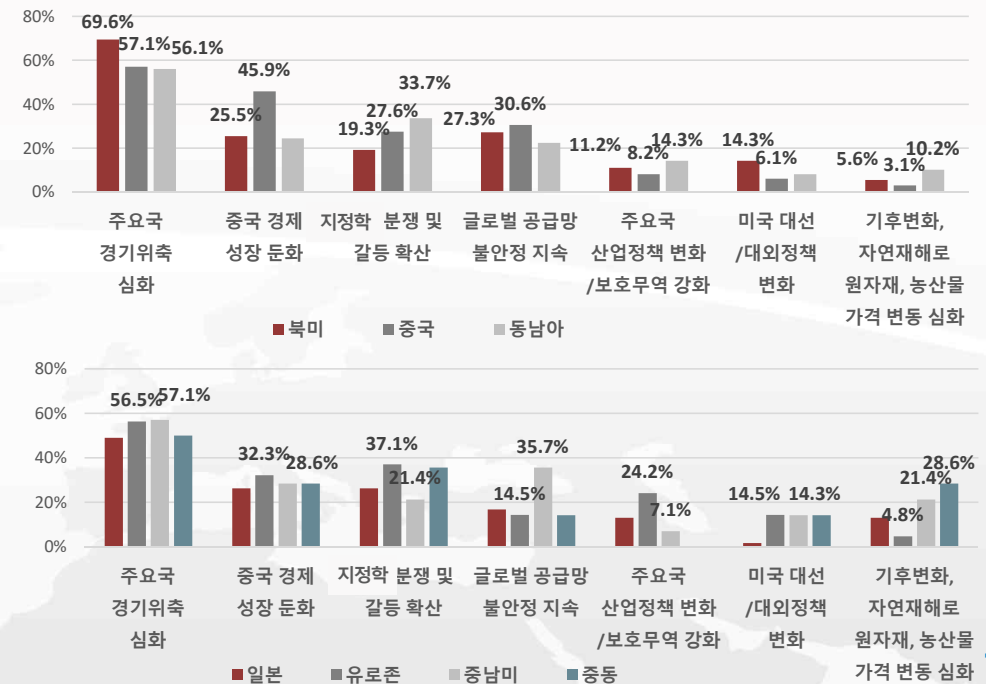
수출 리스크 : 산업별

(전체 514개 기업)



수출 리스크 : 지역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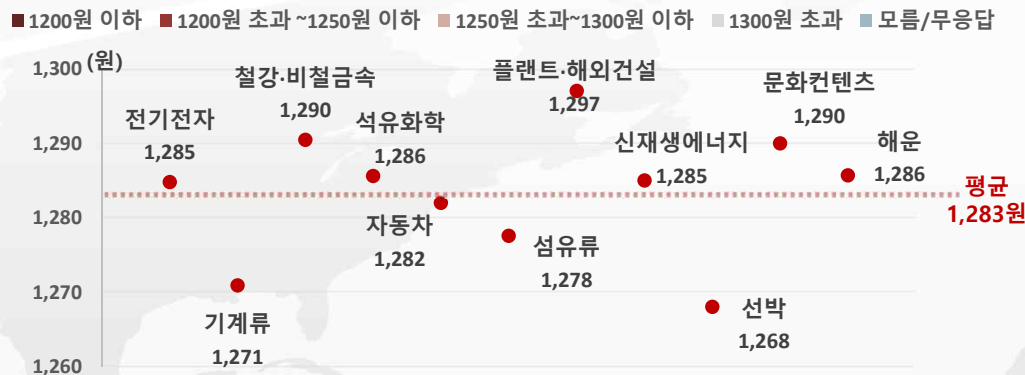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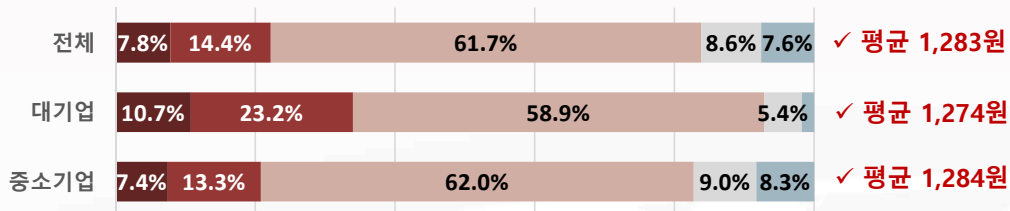
(전체 514개 기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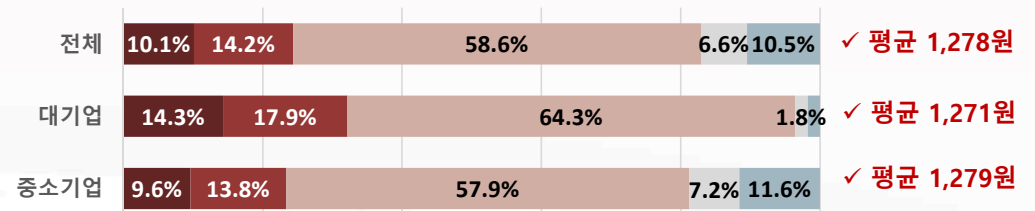
■ 수출기업 '24년 연간 업무계획 환율 평균 달러당 1,283원, 손익분기 환율 평균 1,278원

- (전체) 설문 대상 기업들의 연간 업무 계획 환율 평균은 달러당 1,283원, 손익분기 환율 평균은 달러당 1,278원
- 2024년 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,324원으로, 현 수준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유지 가능
- 손익분기 환율 대기업 평균은 달러당 1,271원, 중소기업 평균은 달러당 1,279원으로, 원/달러 환율이 달러당 1,270원대로 낮아질 경우 중소기업의 손실이 먼저 발생할 수 있음.
- (산업별) 손익분기 환율이 평균(1,278원)보다 높은 산업은 선박(1,293원), 전기전자(1,284원), 철강(1,281원), 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(1,280원), 석유화학(1,279원)으로 원/달러 환율이 1,300원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타산업 대비 이익 축소 가능

연간 업무계획 환율 (원/달러, 514개 기업)



손익분기 환율 (원/달러, 514개 기업)



■ 2024년 수출, 설문 대상 기업 28.0% 전년대비 '증가' 전망, 20.8% '감소' 전망, 증가율 전망 평균은 14.3%

- 산업별로는 전기전자·해운·철강·기계가, 지역별로는 유로존·북미의 증가 전망 높음.
- 중국 지역 수출기업들의 경우 '증가' 전망 24.5%, '감소' 전망 17.3%로 증가 전망이 우세하나, 증가 전망 비율도 평균 대비 낮고 증가율 전망(전년대비 10% ↑)도 평균을 하회해 수출회복세는 존재하나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■ 수출 증가 요인은 "수출대상국 경기개선(41.0%)", "글로벌 공급망 개선(39.6%)"

- 수출 감소 요인에 대해서도 "수출대상국 경기둔화(68.2%)", "글로벌 공급망 불안정(29.9%)"으로 답해, 수출 경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

■ 2024년 예상되는 수출 리스크는 "주요국 경기위축 심화(59.7%)", "중국 경제 성장 둔화(29.8%)", "지정학적 분쟁 및 갈등 확산(28.2%)" 등

- 석유류·철강 수출기업은 "중국경제 성장 둔화", 자동차·신재생에너지 수출기업은 "미 대선 및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" 우려 높게 응답

■ 수출기업 2024년 연간 업무계획 환율 평균 달러당 1,283원, 손익분기 환율 평균 1,278원

- 2024년 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,324원으로 현 수준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 유지 가능